

1991. 7 창간호

나눔터

상담전화 02) 522-1040, 522-1041

전화상담 월-금(오전 10시-오후 5시)

면접상담 화·목(오전 10시-오후 5시)

폐년날 : 1991년 7월 30일/폐년곳 : 한국성폭력상담소(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주소 : 서울 서초우체국 사서함 45호(우. 137-600) / 전화 : 02) 522-1042 / 격월간 발행

한국 성폭력상담소 개소식

일시: 1991년 4월 13일 토요일 오후 3 ~ 5시

장소: 이대 중강당



4월 13일 이대 중강당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식을 축하하는 노래 한마당.
사진제공 : 한겨레 신문

차례

- 이렇게 태어났습니다...2
- 나눔터를 마련하고...3
- 격려의 글...3
- 축하의 글...4
- 축시...6
- 기획 : 강간, 바로 압시다...8
- 상담원 교육을 받고...10
- 상담을 하며...11
- M·T를 다녀와서...11
-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12
- 알림판...14
- 함께 일하는 사람들...15
- 상담은 이렇게 합니다...16

여성운동 실천의 장으로

1. 태동기 (1990년 8월)

평소 남성중심적인 사회에서 억압받고 소외당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성폭력에 대처하고, 성폭력 피해여성들을 돕기 위한 강간위기센터 설립에 의견을 같이하게 되다.

그리고 상담과 연구를 연결선 상에 놓고 함께 할 때 진정으로 올바른 상담과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서로 적절히 조화를 이루면서 끝어가 보기로 결정하여, 강간위기센터 설립을 위한 기초 작업을 시작하다. 강간위기센터에 관련한 논문, 책, 센터 주소 등의 자료수집과 미국에 있는 강간위기센터들에 한국에서의 강간위기센터 설립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서신을 발송하다. 강간위기센터 상담 및 운영방식, 기금확보 등에 관한 초안을 만들다.

2. 뜻 모으기 (1990년 9월)

여성학을 공부하고 여성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50여명의 발기인이 모이다.

3. 얼굴 그리기

사업계획 및 운영방안 모색기(1990년 10월)
상담소 설립준비위원회를 결성해서 정규모임을 갖기로 하다.

1차모임(10월 11일)—사업계획 및 조직구도에 대한 집중적 토론이 이루어지다.

2차모임(10월 18일)—주로 상담방법, 시간, 범위, 상담원 교육문제 등이 거론되다.

상담원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기로 하고, 기금마련의 한 방안으로 호루라기 불펜판매가 제안되고, 기금과 후원회 확보를 위한 상담소 안내 책자의 필요성이 제기되다.

3차모임(10월 26일)—준비해온 상담원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내용, 강사, 교육시간, 실시시기 등에 관해 논의하다.

강간위기센터 명칭에 대해 집중토론한결과 “한국 성폭력 상담소(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로 결정되다.

의료, 상담, 법률, 연구 각 분야에서 뜻을 함께 하는 40여명의 자문위원이 구성되다.



상담소 설립에 뜻을 함께한 발기인들이 모여 상담 방식 및 운영에 관해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

4. 몸통 그리기 (1990년 11월~12월)

김길자씨(홍보출판 자문위원)가 종로구 청운동에 상담소 개소준비를 위한 장소를 제공해 주다.

11월 10일 자문위원, 발기인들이 함께 모여 단합대회를 가지다.

11월 17일부터 발기인들을 중심으로 상담교육이 시작되다.

상담소 기금마련을 위해 호루라기 불펜 5천개를 제작하여 여성학 강의시간등을 통해 판매하다.

상담소 안내책자(5천부)를 만들다.

5. 심장 그리기 (1990년 12월~1991년 3월)

16주간의 상담교육이 이루어지다. 이장호 교수(서울대 심리학), 조희진 검사등 전문가를 초빙, 강의를 듣는 한편 강간에 관한 책을 선정하여 세미나와 토론을 하다.

제1차 자문위원 이사 모임을 개최, 앞으로의 운영방안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다.

발기인 전체모임을 갖고, 상담방법, 상담의 범위, 그리고 상담소 재정 및 운영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만들다.

6. 태어나기 (1991년 4월 13일)

3월 18일 서초동 사무실로 이사를 하다.

3월 28일부터 본격적인 홍보를 시작하다. (4월 13일 개소 전에 60여개 언론매체 : 각 일간지, 주·월간지, TV등 방송매체에 상담소 소개)

3월 28일부터 상담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하다. (매일 15건~20건)

1991년 4월 13일 이화여대 중강당에서 개소식을 하다. ■

나수

“성폭력씨 나오세요!”

성폭력상담소에서 처음으로 은행구좌를 개설할 때, 은행원이 부르는 말

“성폭력씨, 성폭력씨 나오세요!”

* * *

가까운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갔다. 한참을 기다려도 상담소 이름을 부르지 않길래 가서 물어보았더니, 왈 “성폭력이라고 큰소리로 말할 수 없잖아요”

* * *

업무상 전화를 하다보면, 상대방으로부터 좀 이상한 반응이 나온다.

“여기는 성폭력상담소인데요.”

“네? 성풍년이라고요?”

“아니, 성폭력이라고요.”

“네, 성풍력요.”

“아니, 아니예요. 성폭력상담소예요.”

* * *

성폭력상담소가 태어나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숨은 노력이 보태졌다. 특히 개소 전까지 혼신을 다해 정성을 쏟아주신 박형옥님과 개소 준비를 위한 장소를 제공해주셨던 김길자님께 감사를 드린다. ■

이제는 침묵에서 깨어나 고통과 부당함을 말해야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자신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 지는 얼마되지 않는다. 특히 최근까지도 성폭력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그들의 절망과 좌절, 깊은 고통을 침묵해왔다.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는 여성들이 감당해내고 있는 고통의 무게, 어두운 절망의 깊이, 그리고 이로 인해 야기되는 술한 가정문제와 사회문제에 무지하고 무관심함으로써 성폭력문제를 방치해온 셈이다. 성폭력 발생율이 세계 2위라는 답답지 않은 상황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성폭력은 일반여성들이 받는 스트레스 중 제1위를 차지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성폭력범죄를 일부 운 나쁜 여성들만의 문제로 간주하고 공개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성폭력 신고율은 단지 2.2%에 머물고 있다. 또한 성폭력 피해여성들은 다른 종류의 폭력 피해자들과는 달리 주변의 불신과 의심 속에서 신체적 피해에 더해 불면, 우울, 노이로제 등 정신적 증상을 나타낼 뿐 아니라 심지어는 자살에 이를 정도로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폭력 발생율의 급증과 그 피해의 심각성

을 생각해 볼 때, 성폭력 문제는 이제 더이상 피해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성폭력문제는 한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여성들의 문제이고 더 나아가 바로 사회 전체의 문제인 것이다. 성폭력문제는 남녀 불평등 사회의 여성문제로 여성을 비인간화시키고 결국은 우리 사회 전체를 황폐하게 하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기나긴 침묵에서 깨어나,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부당함을 말하기 시작해야 하는 때다. 그리고 고통과 그 극복을 함께 할 수 있는 나눔의 자리가 반드시 필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사회적 요청위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 설립을 위한 구상은 지난해 8월 뜨거운 피약별 아래 시작되었다. 평소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의지를 다지던 사람들이 뜻을 함께 한 것이다. 그후 약 8개월에 걸쳐 더 담는 작업을 한 결과 우리 문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터, 한국성폭력상담소가 태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출범 3개월 반 만에 어느새 5백여 명과의 나눔이 이루어졌다. 앞으로 더 많은 나눔을 이루기 위해 여성중심상담, 예방프로그램, 성교육 및 홍보활동 등을 통해 우리의

힘을 더욱더 쏟을 것이다. 또한 24시간 전일 운영되는 종합위기센터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나눔터에서 일어난 일들을 관심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식지, '나눔터'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렇게 오기까지 우리의 나눔터를 세우는 일에 뜻을 함께 하고 시간과 정열을 나누어 준 여러 동료들, 각계의 자문위원들, 이사들, 자원봉사자들을 비롯하여 우리의 터가 나눔터로 존재할 수 있도록 도와준 후원회원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



최영애 본 상담소 대표

격려의 글

인간해방에 큰 몫 하기를



조형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소장
본 상담소 이사장

인류가 그 역사를 통하여 풀지 못한 모순 중 가장 중요한 것을 꼽는다면 무엇보다도, 평화에 대한 간절한 소망에 반하여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는 아비한 폭력의 지속일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늘 우리와 함께 있어온 남성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가장 비인간적이고 반인간적인 행위일 것인데 그것이 숨겨지고 지속되어 왔음은 인류사의 수치요, 바로 오늘 우리의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여성이 성폭력에 대한 공포심과 체험을 공유하고 있는 이 가공할 상황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발족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여성이 자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자율을 지킨다는 것은 그들의 사회적 위치를 향상시키는 데에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

폭력의 문제는 아직도 가부장적 뿌리가 깊은 우리 사회에서 법률이나 상식으로 해결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들 스스로가 자구책을 마련하는 이 사업의 의의가 더욱 돋보입니다.

특히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졸업생을 중심으로 뜻과 힘을 합하여 이런 중요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을 계속 폭로하고 피해자를 위로하며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사건을 예방함으로써 이 땅에 이제까지 온존해온 악의 요소를 근절시키는 데에 이 상담소가 큰 몫을 해 낼 것임을 확신합니다. 끝으로, 더 많은 동지들을 얻고 힘을 보태어 여성해방, 인간해방의 길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기는 일에 전력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

성폭력 상담소의 개소를 축하합니다

숭고한 성(性)이 상품화되고
 향락의 대상이 되어
 부녀자 인신매매·강간·어린이 성폭행
 등 각종 성폭력이 난무하여
 인간상실의 도덕적 타락현상을
 우려하는 소리가
 사회전반에서 일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폭력이 정의를 압도하고
 힘 가진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는 속 깊은 병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가정의 폭력부터 구조적인 폭력에
 이르기까지 약자들이 당하는
 고통을 어루만지고
 보호해 줄 이 뜻깊은 일에 여성들이
 앞장서서 힘을 모았다는 데
 깊은 사랑과 존경을 보냅니다.

정신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일

곽영숙

국립정신병원, 소아정신과장

사회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성폭력 문제를 취급하고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상담소가 문을 연 것을 매우 환영합니다. 섬세한 이해와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하는 피해자 문제가 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전화상담, 면접상담 등으로 다뤄질 수 있게 된 것은 정신건강 예방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 상담소가 여성의 무고한 희생을 막고 여성들이 자유로울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하고 실질적인 일

김경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한국성폭력상담소의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성의 정조는 목숨보다 귀한 것으로 교육하는 유교권 사회에서 교통사고처럼 빈번히 일어나는 성폭력에 남몰래 고민하는 여성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고 심신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실질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성을 위해 많은 일 하시고 무궁한 발전 있기를 기원합니다.

어린양을 쓰다듬는 마음으로

김남하

서울혜원여고 교장

평화로운 양떼를 짓밟은 이리를 우리는 증옅합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그 아픔을 모릅니다. 무참히 할퀴 어린 양의 상처를 쓰다듬고 무리에게 돌아가도록 살피는 일은 매우 소중합니다.

일선에서 양떼를 먹이는 사람으로서 속수무책으로 이리에게 당하기만 하는 양떼들을 보호해주고 스스로 건강을 되찾아 동료들에게 돌아가도록 도와주는 한국성폭력 상담소의 출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이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올바른 성도덕의 정립을 위해

김윤덕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숭고한 성(性)이 상품화되고 향락의 대상이 되어 부녀자 인신매매·강간·어린이 성폭행 등 각종 성폭력이 난무하여 인간상실의 도덕적 타락현상을 우려하는 소리가 사회전반에서 일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사와 관계 없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고통받고 희생되어야 하는 이들을 위해 힘이 되고 사회를 밝히려는 높은 뜻에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성(性)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에 따른 성도덕, 성윤리가 바로 세워지고 도덕적 일탈행위가 심판받게 되길 바랍니다.

있어서는 안 될 현상 근절되길

김태길

철학문화연구소 이사장, 서울대 명예교수

성폭력이라는 있을 수 없는 현상이 있는 까닭에 한국 성폭력 상담소라는 새로운 단체가 생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현상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은 부끄럽고 불행한 일이며, 그 불행에 대처하기 위한 단체가 생기게 된 것은 불행 중 다행입니다. 이 새로 생기는 상담소의 활동과 공적으로 저 부끄러운 현상이 하루 빨리 근절되기를 염원합니다. 그리고 이 상담소가 한국 여성을 위해서 더욱 적극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이름의 간판을 달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알찬 결실 기대하며

박양실

한국여의사회 회장

밝아오는 새봄에 한톨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이 씨앗을 충실하게 키우기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공해없는 물과 거름을 주고 눈부신 햇빛을 쏟아부어야겠습니다. 가장 절실한 시기에 가장 절실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격려의 박수를 보내면서, 아름다운 꽃이 피고 훌륭한 결실을 거두기 바랍니다.

마음놓고 딸 키우는 세상으로

이계경

여성신문 발행인

성폭력을 당해도 말 못하고 혼자 고민하며 고통받았던 여성들을 위해 힘을 주는 상담소가 생기게 되었다니 무엇보다 2천만 여성을 위해 반가운 소식입니다. 특히 이번 상담소 개소가 여성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었다니 더욱 기대가 큼니다.

아무쯁록 우리 사회의 성폭력이 없어져 마음 놓고 딸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세상이 되도록 빨리빨리 발전하시길 기원하며 개소를 축하드립니다.

법과 행정으로 고칠 수 없는 상처까지도

이계순

정무제2장관

한국성폭력상담소의 개소를 축하합니다. 날로 빈도가 증가하고 흉포화되고 있는 범죄에 있어 경제적인 면 뿐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피해까지 감수해야 하는 여성들을 위해 상담소가 개소된 것을 환영합니다. 정부는 현재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의 근절을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맞추어 귀 상담소가 법과 행정으로는 다치유될 수 없는 피해여성들의 상처를 감싸주

고 피해 예방활동을 벌이게 되어, 살기좋은 사회의 실현을 앞당기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훌륭한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악자의 고통 어루만지길

이태영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한국성폭력상담소의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사회는 폭력이 정의를 압도하고 힘 가진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는 속 깊은 병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가정의 폭력부터 구조적인 폭력에 이르기까지 약자들이 당하는 고통을 어루만지고 보호해 줄 이 뜻깊은 일에 여성들이 앞장서서 힘을 모았다는 데 깊은 사랑과 존경을 보냅니다.

모든 폭력의 원초적 뿌리

이효재

한국여성단체연합회 회장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상설된다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성폭력에 분노한 여성들이 이것을 추방하려는 의지의 결집으로 이렇게 실천함을 축하합니다. 성폭력은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가장 야만적 형태이며 우리 사회에 만연하는 모든 폭력의 가장 원초적 뿌리입니다. 그러므로 성폭력의 추방 없이는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사회로의 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상담소는 성폭력 피해여성들을 살리는 데 기여하기 바랍니다.

정책과 대안 수반되는 여성운동을

한명숙

한국여성민우회 회장

성폭력의 피해자가 늘어가는 오늘의 상황

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생긴 것을 무척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전개해 온 제도적 수준의 운동을 극복하고,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있는 모임답게 전문성 있는 정책과 대안이 수반되는 여성운동을 전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폭력이 양산되는 우리 사회구조의 뿌리까지 고치려는 노력과 의지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바람직한 성문화 이뤄 가길

현나영

대학생

순결과 정숙만이 여성의 지고한 가치라고 교육 받아왔으면서도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타락과 폭력 속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분열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첫발을 내딛는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숨죽인 채 고통을 삭이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과 아울러 바람직한 성문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성교육 프로그램 기대

현혜순

주부

딸을 기르는 엄마로서 다정한 이웃을, 학교 선생님을, 친구를 믿지 말라고 가르쳐야 하는 현실이 늘 가슴 아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폭력상담소의 출현은 많은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해 다양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올바른 성인식을 심어주어 건강한 성문화를 이뤄가길 기대합니다. ■
(가나다 순)

살맛나는 세상을 위한 풀잎들의 시편



故 고정희

한국성폭력 상담소 창립을 축하하는 귀한 시를 써주셨던 고정희 시인은
지난 6월 9일 지리산 산행중에 실족으로 우리곁을 떠나셨습니다.
본 상담소 홍보·출판 자문위원을 맡아 우리의 힘을 북돋아 주셨던
고인의 뜨거운 가슴을 우리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 있음은
해와 달이 더 이상 자매이지 못하고
별들마저 운행을 멈춘 그곳
끝내는 강물이 통곡으로 흐르는 그곳
즈문 가람 모래밭에
무참하게 유린당한 자매들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 있음은
바람이 북쪽에서 남쪽을 겁탈하고
어린이가 어른에게 강간당한 그곳
굶주린 악마들의 오두막에서
양갈보 똥갈보가 태어나는 그곳
인두꺾을 쓴 사자들의 도성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딸들의 비명을 듣기 때문입니다

아아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 있음은
언제부턴가 팔려가는 신세의 냉혹한 피눈물이
죄없는 여자들의 차지가 되고
언제부턴가 전쟁과 평화의 골깊은 어둠이
여자들의 운명으로 둔갑하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를 찾아나선 여자가 어느날
취도새도 모르게 거리에서 사라집니다
햇빛 쏘아지는 골목에서
일나간 어머니를 기다리며 뛰놀던 아이가 어느날
입을 틀어막힌 채
사나운 독수리 발톱에 채여 어딘가로 사라집니다
상사의 수족처럼 일하던 여성이
어느날 갑자기 비탄어린 사표를 쓰고
야업 잔업 끝내고 귀가하던 딸들이
그 어느 날 광란하는 밤거리의 야수에 붙잡혀
한마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당하고 피흘리고 숨을 거둡니다

의지했던 사촌이
믿었던 인척이
혈육인 아버지가
어느날 갑자기 악령으로 변신하여
앙기슴 젖무덤 눌러덮칠 때
칼날보다 무서운 강요된 침묵만이
아주 뻔뻔스럽게 〈아! 대한민국〉 무궁화로 피고 집니다
뼈속깊은 수모와 굴욕의 고통이
딸들의 생애에 종지부를 찍습니다

누가 그 치욕을 모른다 말하리까
누가 그 공포를 모른다 외면하리까

우리가 오늘 여기 모여 있으니,
동쪽에서 일하던 어머니들 달려오고
서쪽에서 일하던 자매들이 달려오고
시방세계 여자남자 울울히 달려와
우리가 여기 오늘 터를 닦아 한 집을 세우니
우리는 이 집을 살림의 집이라 이름합니다
우리는 이 집을 위로의 집이라 이름합니다
우리는 이 집을 해방의 집이라 이름합니다

피맺힌 팔자들이 운명의 가시를 털고
늪름한 숲으로 돌아오는 세상
순결 정절 형틀에 불길 확 끼었어
풀잎으로 풀잎으로 파도치게 하는 세상

각자 자존의 깃발
각자 목숨의 깃발
창궁 끝간데까지 나부끼는 세상

그런 살맛나는 세상을 위하여

새로 태어나는 딸의 머리 위에
축복의 향유를 붓고
새로 출발하는 신부의 발걸음에
자유의 꽃다발 평등의 꽃다발을 바치는
그런 살맛나는 세상으로 가기 위하여

살맛내는 사람 자매들이여
그대들 바로 여기 터를 닦았구나
살맛내는 사람 동지여
우리가 바로 여기 집을 신축했구나

우리 서로 깎지킨 이 동아리 따뜻하여라
우리 서로 떠받치는 이 어깨동무 든든하여라
빙벽을 허무는 강강수월래
우리들의 두 발로 우리 땅에 입맞춤하는 강강수월래 으쓱, 으쓱하여라

우리 슬기, 우리 기상으로 다진 이 터에서
맷힌 한 풀어주고 고통을 싸매주는 이 부활의 터에서
살맛나는 집이 나란히 나란히
살맛나는 풀잎들이 나란히 나란히
지평선을 이루고 징소리 깃드리라
어린 딸들이 춤추고 맘껏 뛰노리라

아아 평화를 꿈꾸는 우리들 가슴마다
마음 가득 차오르는 여백의 고요함이며
그 창궁 아슬히 솟은 성화대에
우리들 못다한 사랑의 불꽃을 당기나니
다함없는 생명의 기쁨을 뽐나니,

강간에 대한 잘못된 통념

박선미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

강간이란 어떤 것인가, 누가 강간을 당하며, 강간범은 누구며 어디서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는가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대개 이런 일을 당하기 전에는 잘 생각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뒤에도 “내가 왜 거기로 갔을까”, “내가 왜 그사람 말을 믿었을까?”, “내가 혹시 잘못 행동한 것은 아닐까” 하며 혼자 자책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강간당한 여자를 두고 많은 사람들은 피해자의 말을 믿기보다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비난하기까지 하는 현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강간을 바르게 인식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린다면 피해자에게 잘못을 돌리는 우리의 편견들은 많은 부분 고쳐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강간에 대하여 잘못 알려진 통념이 무엇이고 이것이 왜 잘못된 것인가를 하나하나 짚어가겠습니다.

잘못된 생각	올바른 인식
1. 나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나이, 종교, 직업, 교육정도, 사회적 지위, 용모에 관계없이 모든 여성들이 항상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강간은 젊은 여자들에게만 일어난다.	미국의 경우 강간피해자들의 나이는 최저 생후 4개월부터 최고 92세에 이르고 있습니다. LA의 한 강간센터에서는 6살부터 80살까지의 여자들을 도와 왔습니다. 여자들이라면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강간을 조심해야 합니다. 연령이나 사회적 지위, 계층, 이웃 그리고 생활태도와는 상관없이 모든 여성들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3. 대부분의 강간사건은 ‘침침한 골목’에서 ‘낯선사람’에 의해 ‘우연’하게 저질러진다.	강간범죄가 우발적인 경우도 있지만, 계획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한 지역에서 지나가는 여자들을 공격물로 선정, 반복적으로 강간을 하기도 합니다. 또 강간은 피해자의 집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또한 범인은 낯선 사람보다는 아는 사람, 즉 친척, 친구, 이웃, 직장동료, 선후배인 경우가 많습니다.
4. 강간은 폭력이 아니라 조금 난폭한 성관계이다.	아닙니다. 강간은 매우 폭력적입니다. 많은 강간범들은 무기를 지니고 다니거나 죽인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강간은 성관계가 아닙니다. 물론 남성의 성기가 삽입되기는 하지만 그것은 여성의 뜻과는 관계없이 일어난 행위이기 때문에 ‘성관계’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따라서 강간당한 여성들은 순결을 잃은 것이 아니라 폭력을 당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잘못된 생각	올바른 인식
5. 여자들은 은근히 강간당하기를 바란다.	여성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낭만적 성관계를 기대할 뿐입니다. 난폭하고 잔인하며 공포감과 모욕감을 주는 강간을 원하는 여자는 없습니다.
6. 강간범은 정신이상자이다.	강간범은 일반인과 다를 바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 중에는 남달리 포악한 사람도 있지만 대개 강간을 일종의 성관계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남자가 원하면 성관계를 할 수 있고, 여자들은 좋으면서도 겉으로는 아닌 척 거절한다고 남자들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강간범이 특별히 정신적으로 이상증세를 보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7. 여자들의 야한 옷차림과 행동이 강간을 유발한다.	눈에 띄는 옷차림을 하고 다니는 여자만이 강간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어떻게 옷을 입고 어느 장소에 가느냐하는 것은 사람마다의 개성이고 고유한 자유이지, 폭력을 당하고 경멸받기 위해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어떻게 주의해야 할 것인가는 알아야 하지만, 주의하지 않았으니 강간 당해도 그것은 여성의 잘못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또 다른 인권침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8. 여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강간범은 많은 경우 말로 위협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때리거나 무기로 위협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저항해도 강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범죄 앞에서 공포심 없이, 있는 힘껏 저항하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여성이 수년 동안 교육받은 수치심으로 인해 힘껏 저항하기보다는 무기력해지기 쉽다는 점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는 것 또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9. 여성들이 스스로 조심하는 것 말고 강간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최소한의 임시방편이지 대책은 못됩니다. 여성들이 더욱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우선 강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일을 대대적으로 펼쳐야 합니다. 먼저 나의 편견부터 점검하고 이웃에게 강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알리도록 합시다.

*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돕기 위해 ‘어린이 성폭행’, ‘직장내 성폭행’ 등을 기획기사로 연재할 예정입니다.

아들과 소꿉장난

최현경
방송작가

어느날 6살 난 아들이 내 목을 끌어안고 다정한 목소리로 “엄마, 소꿉장 하나만 사주세요” 한다. 갑자기 속이 뜨끔해진 나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이유를 묻는다. 사내녀석이 소꿉장이 웬 말이라는 말이 입안에서 뱅뱅도는 걸 간신히 참는다. 이만한 자제력은 그동안 여성학 강의를 받은 덕분이다. 아래층에 사는 또래의 여자아이를 집으로 데려와 같이 놀기 위해서 소꿉장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사주기로 약속을 했다.

여성학을 들으면서 남자답게 키우고 싶었던 내 아들에 대한 육아법을 수정할 필요를 많이 느낀다.

원고를 쓰거나 직업상 필요해서 밤 늦도록 비디오를 보느라고 잠이 늘 부족한 나를 위해 육아와 가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남편이지만 여권(女權), 평등(平等) 어쩌고 하면 이맛살을 찌푸린다. 그런 걸 인정해 버리면 공처가로 오인 받을까봐 불길한(?) 모양이다. 나를 도와주는 것을, 보기에 불쌍하니까 어디까지나 봐준다는 식의 우월감으로 표시해야 마음이 놓이는가 보다. 그런 남편을 두고 주위에서는 착하고 이해심 많은 남편이라고 칭찬이 자자하다. 별 수 없이 나는 착하고 이해심 많은 남자하고 사는 좀 모자라는(?) 아내인 것이다.

방송국에 가도 남편의 이런 보이지 않는 후광은 늘 따라다닌다. 남편도 일이 있으면 늦는 수가 허다인데 왜 내가 일때문에 늦게 다닐 수 있는 것은 이해심 많은 남편 덕택이라고 여기는 걸까? 나는 남편이 회사일로 출장을 가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데, 남편은 내가 방송일로 출장가는 일을 왜 남편의 대단한 특혜로 생각하는 것일까? 이걸 뭐가 부당하지 않은가?

그뿐만이 아니다. 흔히 남편은 아내에게 반말을 하는데 부인은 남편에게 존대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또 맞벌이하는 아내들은 다들 살림도 잘하는 완벽주의자들이다. 그 완벽주의 뒤에는 사실은 눈물겨운 노력이 있다. 그리고 왜 여자는 인신매매와 성폭행의 공포에 시달려야만 할까?

생활에서 접한 사소한 인식들이 여성학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고 바람직한 여성상을 그려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알고는 있어야 되겠다는 자각이 들었다.

몇주 동안 강사님들의 개론적인 강의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처 못느꼈던 부분들이 적나라하게 문제로 제기될 때는 심한 혼란을 느



· 7월 9일 상담원 예비 여성학 교육을 마치고

생활에서 접한
사소한 인식들이 여성학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고 바람직한 여성상을 그려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알고는
있어야
되겠다는 자각이 들었다.

졌다. 그 혼란을 극복해나가는 것이 나의 과제일 것이다.

며칠 전에 드라마 초고를 써서 PD에게 가져갔더니 읽어보고는 양미간을 좁혔다. 연애 결혼한 동갑내기 30대 초반의 부부를 서로 반말하게 만들었더니 여자가 경망스러워 보인다는 거였다. “그럼 서로 존대하게 하죠” 선선히 대답했더니, 나를 뻔히 쳐다보던 PD가 정색하고 한마디 했다.

“요새 여성학 강의 들으신다더니 많이 배우신 모양인데, 제 드라마를 여성운동의 시험장으로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새롭거나 획기적인 일을 처음 시도할 때 시험이라는 말을 쓰는 것 아닌가요?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을 가지고 시험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건 내가 의문스럽게 대꾸한 말이다. 부부가 반말한다고 해서 평등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닐텐데...

정말이지, 여성의 인간화가 상식이고 당연한 사실이 되는 그런 날이 언제나 올까? 그래서 내 아들이 소꿉장을 사는 일이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고, 우리(여자)가 모여서 작은 일에도 분개(?)하는 그런 일이 하루 속히 없어졌으면 싶다. ■

피해 여성 고통 머리속 떠나지 않아

안연선

창원대 강사

“여보세요. 성폭력 상담소입니다.”

“.....”

“성폭력에 대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

“말씀하시기 힘들시면 마음의 준비가 되실 때 다시 전화주세요.”

떨리는 마음으로 받았던 나의 첫번째 상담 전화는 이렇게 끊어졌다. 전화를 건 사람은 어떤 말 못할 고통이 있길래 저리도 힘들어 하는 것일까? 이 말없는 피해자의 전화를 시작으로 그동안 여러 통의 상담전화를 받았다. 피해여성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때로는 흐느끼는 목소리로, 어떤 때는 자포자기한 절망의 목소리로, 또는 분노가 가득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피해아동의 부모, 선배, 언니, 또는 이웃사람이 피해자를 대신해

서 상담을 해왔다.

성폭력상담을 하면서 나는 한동안 무척 우울한 나날을 보냈다. 피해여성의 이야기가 머리 속에서 떠나질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담원으로서 내담자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했다. 대부분의 피해여성들은 성폭력이 자신의 부주의함 때문에 일어났다고 자책했다. 잘못은 피해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가해자에게 있다고 아무리 말해도 그것을 수긍하려 하지 않을 때 나는 큰 어려움을 느낀다. 더 나아가 피해여성이 완전히 자포자기한 반응을 보일 때, 그래서 “이대로 죽고 싶어요”라고 말할 때, 나는 상담자로서 가장 큰 고통을 느낀다. 그러나 이렇게 전화를 걸어왔다는 것만으로도 이 피해여성은 회복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자위하며 내 자신을 추스리고 다시 전화벨에 귀

를 기울인다.

여성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그동안 우리 사회의 여성문제를 머리로 생각하고 진단해왔다면, 이제는 머리와 가슴과 몸으로 여성의 삶과 그속에서 생겨나는 슬픔, 분노, 기쁨을 느끼고 배우고 있다. 처음 상담원을 하겠다는 결심도 ‘머리’만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초기에 상담소를 준비할 때 나 자신이 직접 와서 보고 듣고 가슴으로 느끼고서야 이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 개인적으로는 상담을 통해 내 몸과 가슴과 머리가 함께 다 니게 하고 싶다. 그리고 나의 이러한 태도가 성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의 회복을 앞당 기는데 작은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

자원봉사를 하며

가슴이 뜨거운 주부들을 만나

- M.T를 다녀와서 -

정경애

7월 6일, 가슴이 너무 뜨거워 온통 열기로 가득찬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 상담 선생님, 상담교육생, 자원봉사자. 생각해 보라. 이 삼자들의 M. T를.

양평콘도로 향하는 버스를 탔을 때만 해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주부, 미혼 여성.....

식사 후 수영장, 탁구장에서 오후 시간을 보낸 뒤 자기 소개에 들어갔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이러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면서 ‘혼전순결’, ‘결혼 후 순결’에 관한 자신의 견해도 곁들 어졌다. 그때, 나는 뜨거운 가슴을 보았다. 각자의 위치에서 뜨겁게 살고 있는 여성들을 만난 것이다. 개별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가족 속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으려 애쓰시는 마음. 출발 전에 내가 생각한 평범한 아내, 세대차가 있는 나이많은 어른, 그래서 잘 어울릴 수 있을까하는 나의 염려는 이 시간을 통해 완전히 허물어졌다.

자원봉사자들에게는 대학교부터 생각해 왔던 여성문제의 해결을 위해 자신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하는 고민들이 보였다.

이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서로의 개별적인 삶을 공유할 수 있었다. 그 짧은 자기소개 시간이 이렇게 우리들을 가깝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 무척 놀랐다.

때굴때굴.., 으하하하.. 밤이 깊어가고 웃음소리가 섞이면서 생활에 찌들었던 우리들의 찌꺼기가 한걸 두걸 떨어져 나가고 있었다. 체력이 약한 사람들은 방으로 들어가고 끝까지 남은 사람들마저 약간 피곤해질 시간. 이미경 선생님 왈 “여러분은 곧 날이 새니까 우리 조금있다 등산가용.”모두 으~아악!! “선생님 우리 조금만 눈 붙이고 자요.”

눈을 떴을 때, 이미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맛있는 아침 식사 후, 잠시 휴식과 산책을 하고, 분과별 토론에 들어갔다. 자원봉사자인 우리팀은 어떻게하면 자원봉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토론했다. 우리는 이번 M. T에서 무척 좋은 경험을 하였다. 이제 서먹서먹한 눈인사가 아니라 별거없고도 허물없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된 것이다. 이제 상담소의 자원봉사자라는 고리로써만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끈끈하게 맺어진 관계가되어 무엇보다도 기쁨

다. 뿐만아니라, 각자의 역할분담을 통해 자원봉사자의 일을 체계화하기로 하였으며, 자원봉사자들의 팀을 구성하고 모임을 정례화시켜 상담소에 없어서는 안될 소금, 고추장, 된장이 될 것을 약속하였다. 애기가 거의 마무리가 되고 마지막 정리에 들어가면서 M. T 소감을 이야기했다. 한마디로 “좋았다”에서 “참 좋았다”로 끝나고 있을 즈음, 이윤경 씨의 소감 말씀 “나 미국가기 전에 한번 더 오고 시피요우.”

서울로 돌아오는 길,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민하시는 상담선생님들의 땀방울과 상담원이 되어 많은 여성들을 돕겠다는 마음을 만났다는 것이 나에게서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되고있음을 느꼈다. 1박 2일 동안의 이야기들 속에는 상담소를 사랑하고, 여성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커다란 힘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가슴에 갈라진 눈두렁처럼 성폭력으로 얼룩진 오늘의 현실에 농부의 손길과 시원한 빗줄기같은 한국성폭력상담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우리 M. T 한번 더 가요. 네!” ■

성폭력 피해 호소하는 전화 끊이지 않아

두달새 400여건 상담

2월 28일부터 첫 상담이 들어오기 시작하여 6월 30일 현재 3백80여통의 전화상담, 16건의 면접상담, 3건의 편지상담 등 지금까지 400여건의 상담을 받았다.

현재 대개 대학에서 여성학, 심리학, 사회학 등을 강의하고 있는 12명이 상담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화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성폭행 후 심리적 피해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 신경정신과 전문의 김동순 선생님이 면접상담을 하고 있다.

전체 상담 건수 중 성폭력 피해 유형을 분류해 보면 <표1>, 강간이 141건으로 제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혼인빙자간음이 38건, 추행 21건, 윤간 18건, 강간미수 6건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기타 항목의 경우 아내구타, 남편의 외도, 인신매매, 의처증, 처녀막 재생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상담을 의뢰해오고 있다.

<표1>성폭력 상담전화 분류 91. 6월 30일 현재

피해 유형	가해자 분류		피해자			소계
			성인	중고생	어린이*	
강간 (141)	아는 사람 (104)	근친	5	5	3	13
		친척	7	4		11
		이웃	12	5	6	23
		선배, 친구	11	3		14
		데이트 강간	7			7
		직장	36			36
	모르는 사람 (37)		21	7	9	37
윤간 (18)			10	8		18
강간미수 (6)	아는 사람		2			2
	모르는 사람		3		1	4
성추행 (21)	아는 사람 (13)	근친		1	2	3
		친척			1	1
		이웃	2		4	6
		직장	2		1	3
	모르는 사람 (8)		5	3		8
혼인빙자간음(38)			38			38
재상담 (76)			49	11	16	76
기타 (89)	이혼문제, 성문제, 아내구타 상담소를 위한 조언, 장난전화		89			89
총계 (389)			299	47	43	389

* 어린이는 13세 이하

** 1991. 2. 28. 부터 1991. 6. 30. 현재 총 389건의 상담 사례를 분석대상으로 삼음.

피해여성, 6세에서 60세까지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연령은 최저 6세에서 최고 60세까지 다양하다. 성폭력 피해자를 연령별로 분류해보면, 어린이가 14.5%, 중고생 19.4%, 성인 66.1%로 나타나고 있다. <표2>

특히 13세 이하의 어린이들도 강간, 윤간, 성추행 등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나이 고하를 불문하고 여성은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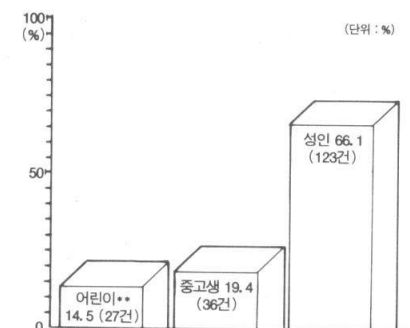
한편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보면 이전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강간 사건 1백41건 중 73.8%가 이웃, 친척, 직장상사 등 아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졌으며 26.2%인 37건 만이 모르는 사람에 의해 일어났다. <표4>

성폭행 주로 아는 사람에 의해

상담 사례 중 현재 8건이 어린이 성추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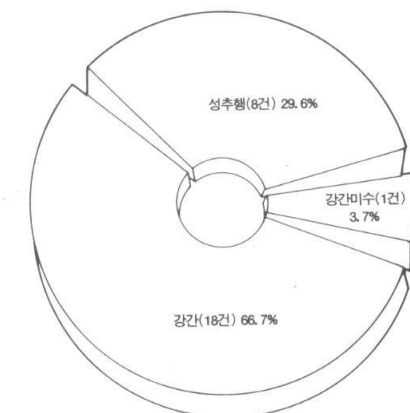


<표2>성폭력 피해자* 연령별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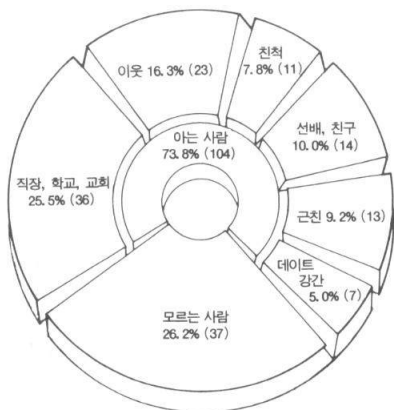
* 강간, 윤간, 성추행, 강간 미수 피해자를 의미함(총 186건)
* * 13세 이하의 여자 어린이를 의미함.

<표3>어린이 성폭행 피해 유형별 분류





〈표4〉 강간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



강간미수, 강간 사건으로 고소 중에 있다. 고소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그 진상을 파악한 후, 담당 검사와 담당 판사에게 성폭력에 관한 자료를 우송하거나, 공정한 수사와 판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해 왔다.

상담에 대한 후속 처리는 산부인과, 정신과 치료를 요하는 경우는 본 상담소 의료 자문위원들과 연결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법률 자문위원들에게 도움을 구해 이뤄지고 있다.

내담자 중 은신처나 쉼 곳이 필요한 경우는 방호선씨가 경영하는 은강자매복지회관*을 소개하고 있다.

앞으로 보다 나은 상담을 위해, 피해여성들로 이루어진 집단상담 프로그램 마련, 심

리치로 프로그램 개발, 현 상담원에 대한 지속 교육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 은강자매복지회관 전화번호 665-9237, 주소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187번지

각계 인사와 하객 3백여명 참석

1991년 4월 13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이화여대 중강당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식을 했다.

성폭력상담 전문기관으로 첫발을 내딛는 자리에는 8개월동안의 노고가 기쁨과 어우러졌다. 식장에는 각계인사와 하객 등 3백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1부 행사는 개회사, 경과 보고 그리고 축사의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정의숙 이대 이사장님, 김태길 서울대 명예교수님, 김계정 여성의 전화 대표의 축사가 있었다. 2부에서는 사물놀이 공연, 비디오 관람에 이어 살풀이 춤, 간담회 등 다양한 잔치마당이 열렸다. 이 마당에 참석한 발기인, 자문위원, 후원회원, 이사 그리고 자원 봉사자들은 상담소의 취지를 깊이 나누고, 힘을 모아 성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진정한 도움이 될 것을 다짐했다.

현재 12명 상담원 활동

1990년 11월 17일부터 16주 동안 매주 1회씩 발기인들을 중심으로 상담원 교육이 진행되었다. 성폭력 관련 강의 및 역할극, 그리고 세미나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현재 12명의 상담원이 상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제1기 상담원 예비 여성학교육 실시

1991년 4월 23일부터 12주 예정으로 매주 화요일(오전 10시—오후 3시) 상담원 예비 여성학 공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교육내용은 여성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위해 가족, 결혼, 성, 일을 주제로 조형, 장필화 교수 등의 강의와 토론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 매주 강의 시작전에 건강모임 다살 이살판의 김진성, 김재훈 선생님이 수지침 등 건강교육을 하였다. 이 교육에는 주부, 직장인, 학생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7월 9일 교육을 마쳤다. 이어서, 상담 원리와 상담원 자질 교육을 중심으로 '상담교육'을 8월 20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10여 단체에서 성폭력 관련 특강

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이대, 홍대, 원광대 등 여러 여성단체 및 학교에서 성폭력 관련 특강을 의뢰해 와 본 상담소 자문위원 및 발기인들이 성폭력 실태 및 대책에 관한 강의를 하였다.

소책자 「성폭력이란」 발간

성폭력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소책자 「성폭력이란」을 발간했다. 이 책은 일반인과 학생에게 보급하여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성폭력 관련 국내외 자료 수집

성폭력 관련 신문 스크랩, 논문 등 국내외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 성폭력 및 성폭력에 관한 비디오 프로그램과 성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자료도 수집하고 있다.

각종 언론매체에 상담소 소개

1991년 6월 30일 현재 신문, TV(보도본부 24시, PD수첩), 라디오, 잡지 등 1백여개에 이르는 언론매체의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상담소 활동 및 성폭력 실태와 문제점을 홍보했다.

강간위기 알리는 호투라기 3천개 팔아

상담소 안내 브로셔를 제작하여 일반인 및 여성학 강좌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본 상담소를 홍보하고 있다. 강간 위기를 알리는 호투라기 볼펜을 제작, 천 원씩 판매하고 있다. 앞으로 본 상담소를 알리는 스티커도 제작할 계획이다.

후원회 참여 2백명 넘어

본 상담소의 취지에 공감하고, 활동에 물심양면으로 참여하고자하는 어린이, 주부, 학생, 회사원 등 2백여명의 후원회원이 구성되었다. 후원회원들이 매월(또는 매년)약정 금액을 후원금으로 송금해, 상담소의 재정에 큰 힘이 되고 있다. 22명의 이사들도 이사회를 구성, 장기적으로 발전기금 마련을 위한 여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성폭력 국제회의 참가, 풍부한 수확

본 상담소 최영애 대표가 5월 9일에서 19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세계여성기금(Global Fund For Women)>이 주최한 페미니스트 워크숍에 참석하고 돌아왔다.

성폭력 및 가정폭력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는 각국의 페미니스트 50여명이 참석, 각국에서의 성폭력 실태 및 대책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고, 성폭력에 대한 주제 토론, 그리고 강간위기센터등 현장 연구의 기회도 마련되어, 앞으로 <성폭력상담소>운영 및 활동에 대해 많은 점을 배울 수 있었다고 특히

각국의 강간위기센터의 자료를 입수해와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또 성폭력 상담소는 세계여성기금에 기금 요청 기획서를 보낼 예정이다.

21년 전 강간범을 살해한 김부남씨 사건, 적극 돕기로

지난 6월 26일 본 상담소 이미경 총무가 강간 가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계류중인 김부남씨를 공주 법무부 치료감호소에서 만났다.

김부남씨는 심한 정신장애 증세를 보여, 7

월 3일까지 한달 동안 정신감정을 받은 후, 8월 16일에 재판이 재개될 예정이다.

대인기피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며, 법적 심판에 직면한 김씨를 돕고자 전주 지역 10개 여성단체는 <성폭력 피해자 사건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무죄 석방을 위한 구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씨 사건 재판은 김씨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의 회복과 더불어 성폭력 사건에 대한 귀중한 판례가 될 것이다.

이에 본 상담소는 담당판사에게 진정서를 제출하고, 김씨의 자립을 위한 모금 활동을 하기로 했다.■

알립니다

상담소 알리판

조형 교수 성폭력상담소 이사장 취임

지난 5월 6일 제1차 이사 모임에서 조형 교수(이대 한국여성연구소장·이대사회학)가 성폭력상담소 초대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

예비상담원·자원봉사자 숙박교육

7월 6, 7일(토, 일) 양평에 있는 정아콘도에서 상담원교육 수강생들과 상담원들 그리고 자원봉사자 등 20여명이 모여 숙박교육을 가졌다.

자문위원과 연계방안 구체적으로 논의

6월 14일 장충동에 위치한 서울클럽에서 제2차 자문위원·이사 간담회를 가졌다. 개소 이후 처음 열린 이 모임에서는 상담소의 활동보고, 자문위원 및 이사 소개가 있는 뒤, 앞으로의 상담소 활동과 자문위원·이사들과의 연계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40여명의 자문위원·이사·발기인들이 참석한 이 회의는 저녁식사와 더불어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어 참석자들이 우의를 다지는 자리이기도 했다.

중고교 교도주임 대상으로 성폭력 특강

본 상담소 최영애대표는 7월 3일 북부지역 중고등학교 교도주임을 대상으로 중고등 학생들을 위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에 관한 특강을 하였다. 또 오는 8월 4일에는 「국민생명」의 신입여사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할 예정이다.

정관 통과, 각부 부장 선임

지난 7월 16일 본상담소에서 열린 총회에서는 20여명의 발기인, 상담원들이 모여 그 동안의 상담소 활동을 보고 받고, 검토 중에 있었던 정관을 통과시켰으며, 상담소 활동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각부 부장을 선임했다.

- 상담부장 : 이명선
- 교육부장 : 김정희
- 조사, 연구부장 : 박선미, 전연희
- 자료부장 : 김미주, 안연선
- 홍보출판부장 : 김선영
- 총무부장 : 임순영

따라서 앞으로는 각부부장들을 중심으로 세미나, '안전한 밤 되찾기'걷기대회,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강간에 대한 책자발간 등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다음과 같이 성폭력상담소를 위해 물품을 기증해주신분께 감사드립니다.

- 고석주(이대, 여성학), 김형래(외대, 화학)냉장고 기증
- 조해자(본 상담소 상담 자문위원)프린터기 기증
- 허만기(BB랜드 대표)후원회원들을 위한 볼펜 1천개 기증
- 이춘호(이대, 여성학)성폭력 상담소를 위해 서초동 현대 오피스텔 201호를 교육관으로 대여
- 추애주(연대, 여성학) : 소파 기증
- *이밖에도 (타자기, 컵, 청소기, 커튼 등)여러가지 크고 작은 물품을 기증해 주신분께 감사드립니다.

—「나눔터」제호는 서예가 중관 최중구님이 써주셨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

발기인

강남식	박혜란	장필화
강숙자	박혜숙	전연희
고석주	서형실	정경자
구훈모	손달례	정세화
김경애	심영희	정현숙
김경희	안연선	조미진
김미경	오숙희	조성숙
김미주	유성혜	조순경
김선영	윤양현	조주현
김정희	이건정	조 형
김혜경	이명선	조혜란
김혜숙	이미경	차옥덕
김홍숙	이상화	차인순
문경란	이숙진	최영애
박미라	이영숙	추애주
박선미	이은희	한정자
박인희	이재경	한혜경
박재신	이춘호	홍승아
박진숙	임순영	황은자
박형옥	허순희	김효선

* 대표 : 최영애
* 총무 : 이미경, 정경자

자문위원

상담 자문위원

서광선 이대 대학원장 기독교학
이장호 서울대 심리학
이혜성 이대 심리학
장연집 서울여대 아동학
조성숙 한겨레 신문 논설위원
조혜자 상명여대 심리학
한정자 한국여성개발원

의료 자문위원

강정옥 임상병리과
곽영숙 소아정신과
김광일 정신과
김동순 신경정신과
남소자 산부인과
박경자 산부인과
박금자 산부인과
박양실 산부인과
윤애리 정신과
이경희 산부인과
이영실 산부인과

이옥주 산부인과
이원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
정동철 정신과

법률 자문위원

강기원 변호사
김강자 경정
김삼화 변호사
김옥철 검사
신기남 변호사
조희진 검사
정갑생 변호사
한인섭 경원대 형법
황산성 변호사

연구 자문위원

김준호 덕성여대 사회학
심영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실장, 한양대
사회학
이상화 이대 철학
장필화 이대 여성학
정대현 이대 철학
정세화 이대 교육학
조순경 이대 여성학
조주현 계명대 여성학
조 형 이대 한국여성연구소장
이대 사회학
추애주 연대 여성학

홍보출판 자문위원

김길자 태양학원 상임이사
김지명 한국동시통역연구소장
김한길 소설가
박진숙 이대여성연구소 연구원
손 숙 방송인
최선열 이대 신문방송학

이사

강기원 변호사
고석주 이대 여성학
김경수 형사정책연구원 도서관장
김길자 태양학원 상임이사
김미주 울산전문대 교수
김혜순 주부
박영희 "사람사는 사회"
연구소장

민병진 민치과 의사
서신덕 주부
양봉실 주부
윤장순 주부
이길녀 인천 길병원 원장
이계경 여성신문 발행인
이승선 주부
이정자 주부
이춘호 이대 여성학
이현정 주부
임연빈 주부
장필화 이대 교수
조 형 이대 한국여성연구소장,
이대 사회학
추애주 연대 여성학
최영애 본 상담소 대표
홍대 여성학

후원회원

강남식	김명숙	김은경
강숙자	김미경	김은숙
강우희	김미래	김정신
강정옥	김미섭	김정희
고석주	김미주	김재훈
고혜원	김선숙	김혜경
구훈모	김선영	김혜경외
권병운	김선희	김혜선
김광웅	김소연	김혜숙
김경순	김수진	김홍숙
김경희	김수향	도현오
김남민	김영화	문경란
김대숙	김준호	박선미
김동령	김용애	박양순

박양실	이미선	조순경
박영희	이상화	조향원
박인자	이선희	조 형
박인희	이소희	조혜란
박재신	이숙진	조희진
박종훈	이시은	차남희
박주혜	이연희	차옥덕
박진숙	이영숙	최미숙
박형옥	이영숙	최선열
박혜숙	이영지	최수경
백계선	이은숙	최옥경
백월순	이은화	추애주
백인철	이은희	한정자
상미현	이정화	한준희
성 숙	이정화	한지혜
송경란	이정희	함애리
송은숙	이재경	홍숙기
서영자	이주호	홍승아
서형실	이진원	황은자
손달례	인수연	현나영
신동애	임귀미자	박경희
심영희	임순영	박미라
안연선	장영복	허순희
양수영	장은심	김효선
여순주	전연희	박원규
오숙희	전영실	김태식
오은화	전형숙	박찬인
유성혜	전 숙	도옥생
윤영옥	정세화	현혜순
이건정	정영덕	김순애
이례희	조미진	허만기
이내은	조성숙	김상기
이명성	조인광	

성폭력상담소 소식지 <나눔터>는 격월간으로 발행됩니다.

편집위원장 : 조성숙

편집위원 : 김효선, 박미라, 신미정, 이미경, 이숙진,
이영숙, 정경자, 최현경

폐년날 : 1991년 7월 30일

폐년곳 : 한국성폭력상담소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서울 서초우체국 사서함 45호(우)137-600

전화 : (02)522-1042, FAX : (02)522-0869

편집디자인 · 인쇄 : 동서기획



상담은 이렇게 합니다.

**상담전화 : 02) 522-1040
522-1041**

상담범위

강간을 비롯한 추행·성착화롱·음란전화 등의 성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며, 정신과의사·산부인과의사·법조인·경찰 등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종류

상담은 일차적으로 전화상담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내담자와 상담자의 만남인 면접상담과, 내담자모임으로 이루어진 집단상담이 있습니다.

상담방법

여성이 겪는 고통과 피해를 개인의 잘못이나 불운으로 보기보다 사회환경 속에서 그 원인을 찾고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또한 내담자와 상담자는 서로 평등한 관계로 만나 문제를 의논하고 극복을 위해 노력하며 나아가서 내담자 역시 상담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상담시간

전화상담 :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면접상담 : 화·목, 오전 10시~오후 5시
집단상담 : 내담자모임이 이루어진 뒤에 시작.
정신과 상담 : 화요일 오후 1시~5시(무료)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상담원

본 상담소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여성학 교육/상담원 교육)을 마친 상담원으로 활동 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상담소 운영에 필요한 여러 활동(번역, 사무보조, 자료정리 등)을 도울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 522-1042)

물품기증

상담소에 필요한 물품을 기증받고 있습니다. (책상, 의자, 컴퓨터, 사무용품 등)

후원회원

〈성폭력 상담소〉의 기본재정은 후원회비로 충당됩니다. 고통받는 피해여성과 아픔을 같이 나누는 마음에서 크고 작은 정성을 모아 상담소의 한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후원회원이 되시면 한 가족으로서 모든 상담소 활동에 참여의 기회가 열립니다. 각종 프로그램에 초청하고 본 상담소에서 발간하는 소식지와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회비 보내는 방법

보내고자 하는 돈을 일시불 또는 매월 분납하셔도 됩니다.
보내시는 분의 성함을 적어서 다음 은행 온라인 계좌로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신 뒤 전화로 연락바랍니다.

•온라인 계좌번호

국민은행 : 009-01-1176-632 성폭력상담소
농협 : 037-01-194301 성폭력상담소
조흥은행 : 308-01-133092 성폭력상담소
한일은행 : 015-040018-01-001 성폭력상담소